

다니엘서 - 번호 백칠십사

예언적 통찰과 신적 계시: 다니엘의 환상과 마지막 때의 함의 이해

Jeff Pippenger

2024-04-04

우리가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난 셋째 대리전(代理戰)을 다루기에 앞서, 이 절들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선행되었는지를 상기하고자 한다. 10장에서 다니엘은 그의 마지막 이상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내적 예언 이상과 외적 예언 이상을 모두 이해하는 자로 확인된다.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dabar"는 "thing"으로 번역되었다. 9장에서 가브리엘이 이천삼백 주야의 이상을 다니엘로 깨닫게 하러 왔을 때에는, 히브리어 "dabar"가 "matter"로 번역되었다.

내가 기도하며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곧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 저녁 제사 때쯤 나를 만졌다. 그리고 그가 내게 알리며 나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고, 내가 그것을 네게 알리려고 왔으니, 네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유의하라. 다니엘 9:21-23.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생각하라"고 말하였을 때, 히브리어 "biyn"은 "깨닫다"로도, 또한 "생각하다"로도 번역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일"로 번역된 "dabar"와 "환상"으로 번역된 "mareh" 사이를 정신적으로 구분하라고 알렸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천삼백 년의 예언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니엘은 "일"로 표상된 예언적 환상과 예언적 "mareh" 환상 사이의 구별을 인식해야 하였다. 곧 "dabar", 즉 말씀을 뜻하는 "일"은 예언의 외적 계열을 나타내고, "mareh" 환상은 예언의 내적 계열을 나타낸다.

다니엘 10장에서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밝혀지는 첫 번째 진리는, 다니엘이 예언의 내적·외적 흐름을 모두 이해하는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일컬음을 받은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는 오래였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이상을 이해하였더라. 다니엘 10:1.

"그 일"은 히브리어 "dabar"이며, "그 환상"은 "mareh" 환상이다. 선지자로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백성을 대표하며, 그 완전한 성취는 십사만 사천이다. 고레스 제삼년은 다니엘을 1989년 끝의 때에 시작된 개혁 노선 안에 위치시킨다. 1989년부터 미국에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 이르는 역사를 대표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세 이레 동안 슬퍼하고 있었다. 십사만 사천의 개혁 노선에서 그 애통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거리에 죽어 있는 삼 일 반을 표상한다.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소돔과 앗굽이라 하는 그 큰 성의 거리는, 또한 에스겔의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이기도 하다.

제10장에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고, 그가 본 환상을 가브리엘이 해석하기에 앞서 세 차례나 손을 대는 일을 당했다. 그 환상은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갈라놓았다. 영원한 복음은 언제나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 도망친 부류와 대조적으로, 십사만 사천으로 묘사되는 예배자들의 부류를 대표했다.

10장 이전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기 위해 세 번 찾아왔다. 그는 7장과 8장의 환상을 해석했는데, 그것들은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왕국들을 정치적 양상(7장)과 종교적 양상(8장)에서 보여 주었다. 그런 다음 9장에서 가브리엘은 2,300년 예언을 해석했다. 가브리엘은 10장에서 9장에서 미완으로 남겨진 해석을 마무리하고,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된 그 환상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착한다. 가브리엘은 먼저 14절에서 그 환상의 개요를 다니엘에게 제시한다.

이제 내가 왔노니 네 백성이 후일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 10:14.

예배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한 그리스도의 환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을 나타낸다. 7장과 8장의 해석은, 각각 맹수들과 제사에 쓰이는 동물로 묘사된, 성경 예언 속 왕국들의 흥망으로 나타난 역사에 대한 해석이었다. 9장의 해석은 2300년의 예언 안에 나타난 서로 다른 예언 기간들을 상세히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10장의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환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을 나타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한 해석, 곧 역사에 대한 상세한 개요를 가브리엘이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니엘에게 말해 두었음을 상기시킨다.

그가 이르되, 네가 내가 왜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리라.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다니엘 10:20.

가브리엘은 14절에서 자신이 말했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을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하려고 왔음을 다니엘에게 상기시키고, 다음에 제시될 예언적 역사에 대한 설명을 그 맥락에서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다. 다니엘은 애통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구체적인 이해를 구해 왔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고자 하여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고, 네 말 때문에 내가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군주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으므로, 나는 거기서 바사의 왕들과 함께 남아 있었느니라. 다니엘 10:12, 13.

다니엘이 세 주 동안 슬퍼한 후 그가 본 그리스도의 환상은 밤모 섬에서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환상과 예언적으로 일치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묘사는 그리스도께서 밤모 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전한 묘사와 유사하다. 우리 주께서는 이제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오셔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치신다. 이 지식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계시하신 위대한 진리는 감추인 보화를 찾듯 진리를 찾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다니엘은 노인이었다. 그의 생애는 이방 궁정의 온갖 매혹 가운데서 흘러갔고, 그의 마음은 거대한 제국의 정무에 얽매어 있었으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적을 알기를 구했다. 그의 간구에 응답하여 하늘 궁정으로부터의 빛이 마지막 때에 살 사람들을 위해 전해졌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열어 주시게 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는가.

"나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몸을 숨기려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내게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 내 고운 모양이 내 안에서 부패로 변하였고, 나는 힘을 전혀 간직하지 못하였다." 참으로 성화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완전하심을 더 분명히 볼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 생생하게 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자기에게는 올바르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순결과 영광과 대조될 때에는 합당치 않고 썩어질 것으로만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가 매우 흐릿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성화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때 가브리엘이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 다니엘아,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똑바로 서라. 이는 내가 이제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말을 내게 하였을 때, 나는 떨며 섰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네가 깨닫고자 하여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검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늘의 위엄을 지니신 분께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영예를 베푸셨는가! 그는 떨고 있는 종을 위로하시고, 그의 기도가 하늘에서 들렸으며, 그 간절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보내졌다고 확신시켜 주셨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세 주 동안 그 왕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하늘의 군주이신 대천사 미가엘이 보내심을 받아 완고한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게 하였다.

'그가 내게 이 같은 말을 하였을 때, 나는 얼굴을 땅을 향하여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보라, 사람의 자손과 같은 모양을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졌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평안이 있을지이다. 강건하라, 참으로 강건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매 내가 힘을 얻고 이르되, 내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신적 영광이 너무도 커서 그는 그 광경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하늘의 사자는 자신의 임재의 광채를 가리고 선지자 앞에 '사람의 자손과 같은 모양을 한 이'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이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헌신적인 종이였다. 그의 긴 생애는 주님을 위한 고귀한 봉사로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품성의 순결과 흔들림 없는 신실함은 오직 그의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에 의해서만 필적되었다. 다시 말하건대, 다니엘의 생애는 참된 성화의 영감 어린 모범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년 2월 8일.

열째 장에서의 다니엘의 경험은, 다니엘과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의 경험이 위치한 예언적 역사 속에 다니엘을 배치하는 열쇠는 그가 애통 중에 있었고 스물한 날이 끝날 때 미가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첫 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예언의 내적 환상과 외적 환상 둘 다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기록한다. 스물한 날 이전에는 다니엘이 그 두 환상을 불완전하게 이해했으나, 가브리엘의 해석으로 다니엘은 '일'과 '환상'을 서로 다른 계시로 온전히 파악한다.

칠십 년 포로 생활의 끝이 가까워지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들에 대해 깊이 마음을 쓰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 그는 이렇게 아뢰었다. "오 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나이다. 또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우리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으나, 우리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들을 주목하라. 다니엘은 주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이스라엘 가운데 참으로 죄 많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지혜는, 한낮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의 빛이 가장 희미한 별보다 훨씬 더 밝은 것처럼,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압도적으로 능가하였다. 그럼에도 하늘로부터 큰 은총을 입은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를 생각해 보라. 그는 깊은 겸비와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날날이 펼쳐 보이며, 자신의 비천함을 자복하고, 주의 크심과 위엄을 인정한다.

그의 간구에는 얼마나 간절함과 열렬함이 깃들여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믿음의 손이 위로 뻗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약속들을 붙잡으려 한다. 그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들으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그는 승리가 자기 것임을 느낀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씨름한 것처럼 씨름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면, 우리도 다니엘에게 허락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간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하늘의 법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호소를 강력히 주장하는지 들어 보라:

오 나의 하나님여, 주의 귀를 기울이사 들으소서; 주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 때문에 주 앞에 간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크신 긍휼을 인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사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나이다. 내가 말하며 기도하며, 나의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에, ... 곧 처음에 그 환상 가운데서 내가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와서 나를 만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궁정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급히 내려와 그의 간구가 들려 응답되었음을 전한다. 이 능한 천사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장차 올 시대들의 신비를 그의 앞에 열어 보이도록 위임받았다. 이처럼 진리를 알고 깨닫고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하늘에서 파송된 사자와 교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의 들뜬 감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구했다. 그의 큰 부담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불행이 그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결과로 그들에게 임했음을 인정한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수치가 되었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고유하고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황폐한 주의 성소 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는 그 번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며, 신실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뿐임을 알고 있다.

그의 간구에 응답하여 다니엘은 그와 그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빛과 진리뿐 아니라, 장차 일어날 위대한 사건들, 곧 세상의 구속주께서 오실 때에 이르기까지의 계시를 받았다. 성경을 탐구하려는 소원도 없고, 성경의 진리를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는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어두워진 이해력을 밝히시고,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마음에 주신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하늘이 그의 앞에 열렸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높은 영에는 겸손한 낮아짐과 간절한 추구의 결과였다.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면밀하고 간절한 탐구로 이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진리를 애타게 기도하며 찾는 수고를 하기에는 너무 나태한 사람은, 결국 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이 방문했을 때 선지자 다니엘은 더 이상의 지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께 빛과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내 입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또 전혀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노라....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베옷을 입고 우바스의 정금으로 허리를 띤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보석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같은 모양이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은 빛깔이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묘사는 밧모섬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기록한 것과 비슷하다. 우리 주께서는 이제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오셔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치신다. 이 지식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세상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년 2월 8일.

“하늘로부터 위임된 사자”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져오고 있던 해석은, 그가 9장에서 이미 다니엘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던 해석의 완성이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법론은 우리가 이 예언적 표상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9장과 10장 두 장의 해석과 그에 수반되는 정황을 함께 서로 대응시킬 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 해석 안에서 울래 강과 히데겔 강의 환상이 서로 연결된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모세의 책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해방이 임박했음을 깨닫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칠십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였던 다니엘에게서 보듯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흠어져 왔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니엘처럼,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대표되는 처방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흠어진 상태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대표하는, 레위기 26장이 제시한 처방이 요구하는 겸손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세의 백성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애통해 왔을 것이다. 그 기간은 대천사 미가엘이 강림할 때 끝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망할 것이요,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쇠잔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쇠잔해질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과, 내게 범한 그들의 허물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슬러 행하였으며, 나도 그들에게 거슬러 행하여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들여보냈음을 인정하고, 그때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 자기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 나는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이삭과의 언약도 기억하며,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기억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 땅을 기억하리라. 또한 그 땅은 그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이 없이 황폐할 동안 자기의 안식년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멸시하고 그들의 영혼이 내 율례를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증히 여기지도 아니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38-45.